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물과 불의 특성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혜리

물과 불의 특성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혜리

인 준 서

김혜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상 만물의 근원인 물과 불을 가지고 작업한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동기와 목적, 이론적 배경,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분석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자연안의 ‘물, 과 불’은 신화,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학문명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에게 필연적 요소로써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물과 불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시대의 정신성과, 동, 서양 미술사에서 산수화나 풍경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매체의 확장과 더불어 여러 조형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물과 불이 가진 속성을 이용해 직접 그리는 도구로써, 또는 스토리 전개에 소재로써 작업하였다. 그 안에는 역사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개인의 경험 기반이 있다. 물과 불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물, 불이 가진 속성 중 하나인 생성과 소멸에서 비롯되었다. 생과사의 원리는 인간에게 생과사의 과정과도 같고 이런 세상의 운명적 이치는 본인에게 많은 반성과, 더불어 자아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했다. 이는 곧 빠른 과학 문명과 인위적인 변화의 환경 속에서 느끼는 대립과 괴리를 통한 관심사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근원적이고, 모태적인 물음에서 창작의 원동력을 갖고 물과 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풀이 하는데 있어서 창작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렇다면, 본인을 둘러싼 환경과 현재의 시대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일상의 반복과 순환으로 기계화 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치열한 경쟁 안에 또 다시 순응하며 흘러가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거역할 수 없는 직렬적 질서 하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 순환 고리로부터 인간성을 찾고 이를 극복하고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과 함께 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인은 이러한 연유에서 자연 안에서도 물과 불을 선택하였고, 물과 불을 가지고 경험했던 사례나 관찰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석사학위 청구전 ‘유(流)요(要)’는 요점을 그리다 라는 내용으로 물성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타이틀이며 ‘o’을 중심으로 π 와 ρ 가 음과 양 반대로 구성하여 형태적 조형미와 함께 물과 불의 상극적 개념을 부각시켜 보았다. 크게 물과 불이라는 섹션을 나누어 진행 하였고 ‘자연은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 없이 순환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노자-1)의 주제 의식을 갖고 물과 불을 직접적인 창작의 도구로써 그리고 내용의 소재로써 다양하게 풀어 보았다.

또한 두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하위 개념을 벗어나 속성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사유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에게 중요한 근원적인 요소이며, 작업의 기본적인 소재일 뿐 작업에서는 두 개념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반대적이거나 상극적인 변화를 가미함으로써 이러한 특이함을 이용하여 작업의 독창성을 추구하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과 불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의미 등을 살펴 보고 본인 작업에서의 물과 불이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사용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老子 『道德經』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 연구	3
1) 물의 흐름과 이동에 관한 접근	3
2) 불의 용해와 응고에 대한 접근	6
2. 조형 연구	10
1) 물과 관련된 작업 연구	10
2) 불과 관련된 작업 연구	22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그림1] 心景(심경)1, 한지위에 먹, 182X389cm, 2015	10
[그림2] 心景(심경)2, 한지위에 먹, 182X389cm, 2015	12
[그림3] 폭포, 한지위에 먹, 389X182cm, 2015	13
[그림4] upside gravity, mixed media, 180X180X290cm, 2015	15
[그림5] raining, mixed media, 290X290X620cm, 2015	17
[그림6] moonlight, 향아리 안에 물과 책, 60X60X75cm, 2015	19
[그림7] 포석정,mixed media, 큐브(30X30X45cm)X8,1050X150cm, 2015	20
[그림8] foce, 캔버스위에 양초, 불, 122X340cm, 2015	22
[그림9] Motion, 캔버스위에 양초, 불, 170X130cm, 2015	24
[그림10] Contens, 캔버스위에 양초, 불, (75X110cm)X4, 2015	27
[그림11] 불의 환(순환), 천에양초, 투명필름, 1000X100X260cm, 2015	29

I. 서론

위 논문은 2015년 석사 학위 청구전 '유요'에서 발표한 작품연구 논문으로써 작업의 주요 소재인 물과 불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작업에서 두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려 한다.

물과 불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이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리적 도구이다. 또한 자연 안에서 존재의 원초성을 보여주는 물질이며, 각각 내부에 正(정)과 反(반)의 성질을 지니며, 새로운 습(합)을 도출하기도 한다.

형태가 고착화 되어 있지 않으며, 생성과 소멸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生)의 과정과도 같다. 이런 우주 만물의 총체적 속성을 이해하고 되짚어 보는 과정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이루어 졌으며, 다소 고전적이기는 하나 빠르고 인위적으로 변화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물과 불의 자연요소가 더욱 매력적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강화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지속 시켜주는 원천이자 힘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가 반복되고 다양한 미디어의 홍수와 스펙터클하게 진행되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 기기가 빠르게 발전된 형태로 출현하고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상 생활 조차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들어 정신적 빈곤에 빠지는 시대이다. 이렇듯, 과학 기술은 어느덧 생명의 반려가 되었고, 과학 기술 이면에서 생긴 dilemma와 melancholy는 인간의 숙명이 되어 버렸다.

태초 이후 인간의 삶이 존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시작은 자연의 원리를 알고자 했던 그 시기가 출발이었나? 이러한 질문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연유하게 한다. 결국 자연의 근본적인 이해와 동시에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본다.

본인은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물과 불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유년시절에서 지금 현재까지 물과 불을 가지고 경험했던 일련의 추억, 발견, 경험 등 미적인 체험을 평면 회화와 설치, 직접적인 도구나 표현양식으로 작업화 시켜 보았다. 물과 불의 다양한 속성은 본인에게 있어 정신적인 생각들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며,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상들을 생각 하게 해주었다.

본 논문은 물과 불을 가지고 미학적으로 분석한 가스통 바슐라르 철학자의 관점, 가치(價値)에 물들지 않은 사물(事物)의 세계와 그 사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인 노장사상,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상징과 형이상학 관점을 토대로 물과 불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분석을 참고로 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토대로 작품의 내러티브를 형상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이 제작되기까지 매체와 재료의 다양한 시도를 알아보고, 평면 회화와 설치 구성, 그 안에 표현되어지는 조형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 연구

1) 물의 흐름과 이동에 관한 접근

물은 만물의 근원 요소 중 하나이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²⁾(Thales)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하여 일원설(一元說)을 주장하였듯이, 인간에게 있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신체,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그 외형은 무색, 투명하고 무미무취 하다. 또한 기체, 액체, 고체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며, 강, 호수,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결국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필수 요소이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듯 모든 생물체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에너지를 품기도 하여 재해나 슬픔을 주기도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³⁾는 『물과 꿈』에서 물의 투명함과 신선함을 거울의 상징으로 보고, 물의 깊이감을 인간의 심리 상태와 결부 시켰으며, 물질과 직접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 않으나 근원적으로 인간의 상상세계에 뿌리를 내린다는 점에서 물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물의 유동성을 근원을 찾아 움직이는 순리로 보았다.

본인 또한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한 ‘물이 지닌 속성이 인간의 상상세

2) 탈레스(Θαλής, 기원전 6세기(대략 기원전 625년~기원전 624년 경~대략 기원전 547년~기원전 546년 경)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3)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1884.6.27 ~ 1962.10.16.)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 구조주의(構造主義)의 선구자이며 시론(詩論)·이미지론(論)으로도 유명하다.

계4)'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공감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물은 깨달음 이고, 삶의 지속과 연장을 위해서 물을 마시며, 강과 바다를 보며, 본인의 감정과 시각적 호기심의 촉발제로 작용하고 있다.

어릴 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엄마의 양수안의 안락함을 물의 상상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물속 안에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본인이 성장하면서 물에 대한 관찰력은 섬세해져 물의 잔잔한 파동을 보고 느끼는 움직임, 시각적인 것 이외에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의 소리부터 거세게 떨어지는 폭포의 소리를 듣는 청각적인 경험까지 물과 관련된 개인의 기억, 경험, 정화의 과정은 점점 확대 되어져 갔다. 그 결과 물은 물을 포함한 장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동시에 본인에게 특별한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유달리 큰달(슈퍼문)을 보면서 달 토끼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우주의 섭리에서 중력에 의한 물의 이동과 잔잔한 물의 흐름과정에서 뇌리에 사유로 축적된다.

이렇게 축적 해온 물의 이미지를 정리 하자면 첫째, 물은 중간자라는 것이다. 침묵 그 상태로의 생각의 결정체로 남아 있다가 온기와 함께 형상이 무(無)가 되는데 무가 되는 과정이 물속 여러 형상의 모습으로 잠시 주위의 자연 그대로의 모양으로 채워져 남아 있다 그 또한 서서히 소멸해 버리는(기체) 중간자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화라는 상징성이 있다. 카타르시스는 청각을 자극하면서 여러 (파도소리, 빗소리..등) 음색으로 나타나는데 형태적으로 유한 현상에서 발현 되 시각과 끝이 존재한다. 시각과 끝의 과정에서 인간들에게 수많은 영적, 촉각적, 청각적 정화를 이루어낸다.

4)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서울: 문예출판사,1980)

세 번째는 물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며, 영혼과의 접, 신과의 접, 소원을 비는 접 모두가 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로 인해서 혼을 받고 물로 인해서 혼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의 정화와 평온을 찾는다.

중국 철학자, 예술가들은 그들의 열망을 다양한 형태에서 자연계의 원리를 이끌어 내려고 했고 특히 산수화(山水畵)화는 유기체적인 조화와 형성되는 과정이 내면, 사상, 역사 의식이 투영되는 공간,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노자는 물의 은유를 통해 '도'의 속성을 알리고자 했으며, 동양에서의 물은 물의 본질과 함께 관념 적이고, 명상적이다.

서양에서의 물 표현은 19세기에 신화나 증세 전설에 대한 관심이 되 살아 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물 자체보다는 물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⁵⁾는 물방울에서 큰 강을 이루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탐색하였으며, 물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물이 다른 사물과 부딪쳤을 때 의 찰나까지도 그려냈다.

현대에 와서는 퍼포먼스, 사진, 설치 등 매체의 확장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어 지고 있다.

이렇듯 물은 예술영역에서 오랫동안 모방과 창조의 대상 이었고, 현대에 와서는 이를 넘어서 본질을 함축화 시키며, 매체를 적극적으로 확장해가며, 무한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2) 불의 용해와 응고에 대한 접근

5)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 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년 4월 15일 ~ 1519년 5월 2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 인간의 전형이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 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인 인간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인상 깊은 사물, 관찰한 것, 착상 등을 즉시 스케치하였다.

불은 물과 대립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빛과 열을 발사하는 물체 또는 그 현상을 말하며, 인류 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 음식물 조리, 흙을 빚어 굽거나 쇠붙이를 녹이는데도 사용하였다. 또한 물과 같이 여러 가지 상상의 대상이 되어왔고, 무서운 파괴력을 보일 때도 있어 양면성을 갖는다. 불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불과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화산의 지각활동과 같이 자연 속의 불이 있고, 인화하기 쉬운 사물과 사물의 마찰을 통한 불의 모습,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하여 햇빛을 모아 발생하는 불,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일으키는 불과, 촛불의 불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은 그 자체로써 인간들의 삶을 영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불은 도구로써 과학적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불의 존재는 신화의 기원 요소부터 과학 활동의 요소까지 작용하며, 과학 활동 안에서도 시적 서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불’원소의 몽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은 우리 풍속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월 열 나흘 날 밤에 아이들이 논둑과 밭둑에 불을 지르고 노는 쥐불놀이부터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정월의 상해일(上亥日)과 상자일(上子日), 즉 돼지날 쥐날에는 횃불을 띄워 풍년을 비는 행사, 대보름날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여겨지는 것 등, 불과 관련하여 여러 풍속이 있다.

철학자의 관점 중 가스통 바슐라르의 불의 상징적인 이미지에서는 “불은 온화한 불, 음험한 불, 난폭한 불” 등 다양한 종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욕망과 정열의 기초 심리학에 따라 특징지을 수 있다고 했다.⁶⁾

6) 가스통 바슐라르, 김병욱 역, 『불의 정신 분석』 (서울:이학사,2007)

불은 ‘낙원’에서 빛난다. 불은 ‘지옥’에서도 타오른다. ‘불은 온화함이기도 하고 고문이기도 하다. 불은 안락이자 존중이다. 불은 수호자 이자 무서운 공포의 신이요, 선한 신이자 악한신이다.’ 라며 불의 양면적인 면모를 설명하고 있다.⁷⁾

본인이 불을 가지고 사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불의 다양한 신비로운 성질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항상 인공적인 빛에 익숙한 본인은 인공 빛의 전원이 나가 대처 수단으로 촛불을 켜던 경험이 있다. 뜻밖의 상황에 당황함과 불안했던 심리가 촛불하나로 인해 명상적으로 분위기가 감돌아 침착할 수 있었던 묘한 기분이 기억난다.

또한 불은 개인의 의지, 희망과 같이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균중의 소리, 힘이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생성해 불의 양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은 생각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상징성이 있는가 하면, 색이나 형태적 특징보다 따뜻한 온기에서 인간이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이끌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끌림은 인간의 염원과 결부되어 인간들의 모든 격식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은 특별한 느낌으로써 상징적인 우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은 단색으로 균질화 시킨다. 불이 진행해 가는 과정은 다양한 모습의 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선의 진행 뒤에는 단색의 채로 남아서 회색으로 변하며 이 같은 현상은 곧 여러 가지 모든 현상 들을 동일하게 균질화 시킨다.

7) 가스통 바슐라르, 김병욱 역, 『불의 정신 분석』 (서울:이학사,2007)

불은 신화 에서도 헤스티아(화덕)⁸⁾, 음팔로스⁹⁾와 같이 가문의 구성원을 탄생 시키고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종교의식과 희생제의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불은 인간 육체의 사멸하는 요소를 정화하며, 영혼 불멸의 상징적인 도구인 것이다. 불은 고대 연금술 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원물질을 찾는 연금술 작업에서는 불순한 물질을 구원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불이 고체를 용해 시켜 용해된 용액을 증발시킨 다음 그 증발된 가루로 굳힐 수 있는 물질완성을 표현한다고 보았다.¹⁰⁾ 또한 소크라테스 이후 불의 상징은 인식하는 주체로부터 인식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옮겨간다. 그리하여 불의 상징은 태양의 비유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플라톤은 태양의 비유를 통해 최고의 인식 대상인 좋음 자체 혹은 선의 이데아를 설명한다.¹¹⁾

불과 관련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살펴보자면, 고구려의 <불꽃 뚫은 무늬 금동관>, <부석사 무량수전 여래상>과 <서산마애 삼존불>의 불꽃모양 광배,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 각저총과 감심총에서 불꽃무늬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 귀속시켜 불꽃모양을 많이 응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양 쪽에서는 불을 가지고 주를 이루는 작업과, 불의 매개로 활용한 양초의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브클라인의 <불의회화>는 비물질성의 개념인 불을 붓으로 이용하여 불의 순수 회화성을 보여주었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촛불과 해골>, <두개의 양초>에서 시간의 흐름, 소멸의 상징, 인간의 의식을 양초로 표현하였다.

8) 헤스티아(그리스어: Hesti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하나로 화덕을 지키고 가정과 가정의 질서를 담당하는 여신이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베스타(라틴어: Vesta)와 동일시된다.

9) 음팔로스는 그리스어로 '배꼽'을 뜻한다. 이는 제우스가 독수리 두 마리를 동서로 날려 보냈는데 세상을 돌아 그 중심에서 만나게 하였다는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두 마리 독수리가 만나는 곳에 바로 세상의 배꼽이라는 의미의 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음팔로스이다.

10) 『예술과 연금술』, 이지훈 저, (경기도:창비 2004)

11) Vernant, J.P,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박희영 옮김, (서울:아카넷 2005)

이렇듯 불은 인류 문명과 기술의 기원이자, 신화나 전설 속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시간성과 예술세계에서는 상징성 그리고 풍부한 상상을 해주는 심미적 수단이다.

2. 조형 연구

1) 물과 관련된 작업연구



그림1 心景(심경)1, 한지위에 먹, 182X389cm, 2015

그림1 心景(심경)1 은 본인의 내면에서 바라본 밤의 풍경이다. 밤이란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날 해가 떠서 밝아지는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생명체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자 미래 계획을 세우거나 깊은 수면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하고 매력적인 시간이다. 본

인에게 받은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이다. 문득 어둠 안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풀잎들의 겹침을 통해서 어둠의 깊이를 볼 수 있고,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구름 사이로 보여 지는 달빛 아래로의 그림자는 또 다른 형상들을 재빠르게 만들어 간다. 밝은 낮의 풍경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자 각박한 도시생활의 하루일과를 끝내고 유일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 풍경 속에서 본인은 어둠 안에서 느껴지는 적막함, 알 수 없는 소리와 움직임, 기운 등을 관찰하고 몰입하여 구상한다. 그것은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한 물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 ‘물’은 상상적 도상, 연성, 변화, 불확정성, 융해점, 증발점을 통한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포함하며, 상상력의 원천이자 사유의 대상으로서 물은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담은 내밀한 세계 등 물질적인 성질을 뛰어 넘어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도한다.”¹²⁾

작업과정에서는 한정된 공간 보다는 화면이 확장(을 오버 페인팅) 되면서 나타나는 조형성을 의식의 확장으로 확대 해 보고자 가용 가능한 큰 화면에 물성을 살린 물(水)의 이동과 끊임, 점에서 선으로 점에서 면으로 순간성을 이용한 자동기술법으로 마르기 전에 단시간에 작업을 하였다.

기법적으로 물과 만나 섬세하고 변화무쌍하게 형상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재료로 먹을 선택하여 먹을 통한 물의 움직임, 깊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물의 성질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화면위에 수압의 상호 작용을 순간 이용하였고 물을 매재로 한 우연적 효과를 구현해 보았다. 화면에서 보이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는 Negative와 Positive효과로써 밤에 본인이 체험한 시각성을 굴절시켜 시각적 찰나를 포착해 보았다.

12)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서울: 문예출판사,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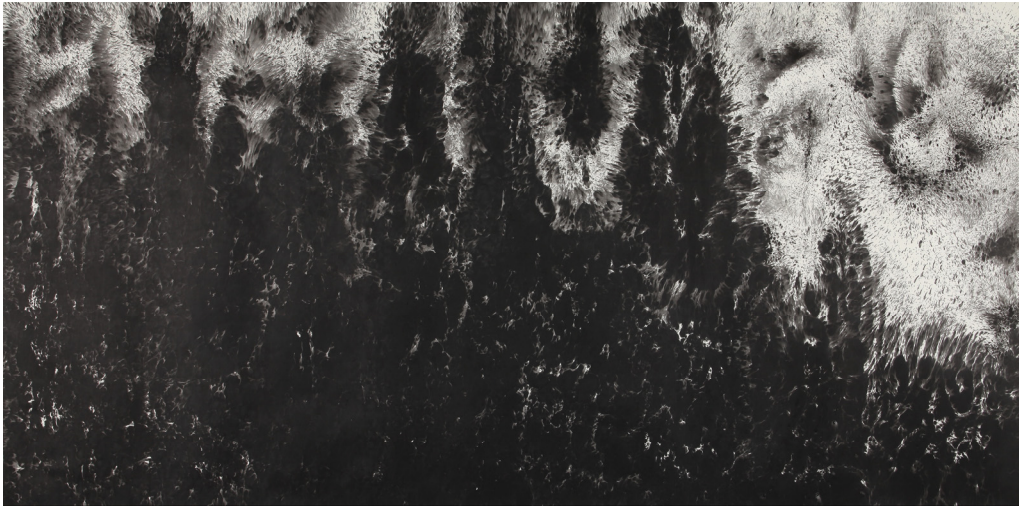


그림2 心景(심경)2, 한지위에 먹, 182X389cm, 2015

그림2의 心景(심경)2 또한 그림1心景(심경)1과 같은 의미이며, 표현적으로는 좀 더 먹의 사용을 극대화 시켰다. 그림1은 사물의 대상성과 관련된 외부의 움직임, 기운, 소리를 함께 시각화 시켰다면 그림2는 보이지 않는 비가 시성의 가시화를 직관에 의해 파노라마식의 구성으로 단번에 해간 작업이다. 그림으로써 그림1에 비해 현상이 더욱 생략되어졌다 할 수 있다. 하늘과 대기의 기운을 물의 우연성을 이용하여 조화롭게 만나기도 하고 마찰에 의해 퍼지기도 하며 이루어진 풍경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말을 언급하자면 물은 순수에 의한 가치 부여 작용의 대상이라 말했듯이 물의 순수성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것이라는 것을 작업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직관에 의한 표현을 펼쳐가면서 순발력과 몰입을 요한 작업이다.



그림3 폭포, 한지위에떡, 389X182cm,
2015

그림3의 제목은 '폭포'이다. 과거 예술가들에게도 물의 표현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폭포는 예술가들에게 많이 그려져 왔다. 유년시절 산에 올라가 경험했던 폭포의 풍경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거센 물줄기의 힘과 소리는 압도적으로 무서웠다. 하지만 차차 그 풍경에 젖어서 시원함을 느끼고 물이 하강하여 이루어진 강물, 그리고 나무와 새,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울러 보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년시절 그 후 다시 만나게 된 폭포의 모습은 경외감과 동시에 감동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도 산수화나 풍경에 접할 수 있는 폭포의

묘사는 일상으로 서의 환기이자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폭포는 수직 수평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그림3의 작업과정으로 활용하였다. 물을 이용하여 먹의 번짐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유연하도록 하고 시간차를 두어 종이를 세로로 세워 질서를 향해 흘러내리는 물의 움직임을 포착해 내었다. 많은 물의 형태가 선하지만 폭포는 많은 양의 물이 폭발적으로 떨어지면서 두려운 감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면성까지 담아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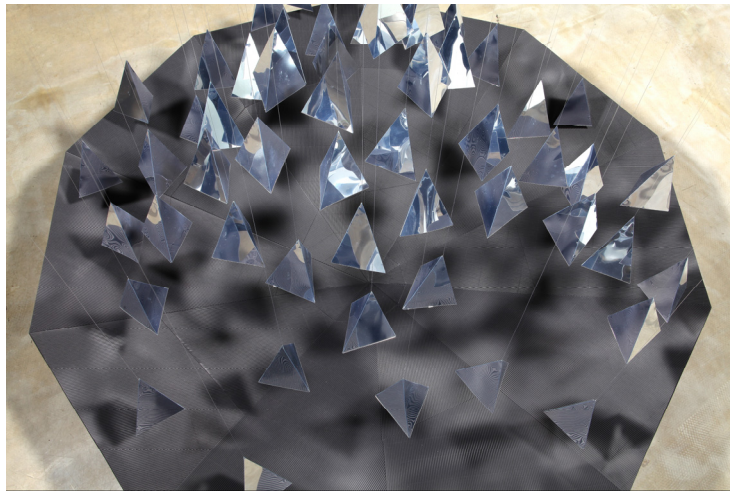
벽에 붙이지 않고 앞으로 흘러내리게 띄워 걸어 봄으로써 종전의 신성시(걸어놓고, 만질 수도 없이 감상만 하는)되 왔던 작품에 대한 공간성을 설치 형식을 도입해 공간 창조로 공간성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 보기위해 평면의 설치미술을 시도 해 보았다.



그림4 upside gravity, mixed media,
180X180X290cm, 2015

그림4의 제목은 'upside gravity'이다. 비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공기를 만나 식어 땅위로 떨어 짐으로써 거대한 호수나 바다처럼 면의 형태가 아니고, 수많은 물의 파편과 방울들의 점적인 형태가 아닌 선의 형태로써 비가 내리는 현상을 역발상 하여 작업 하였다. 인간들은 거대자연에 의해 내리는 비를 우산으로 막는다. 하지만 작업에서는 균질화 된 인간의 나약함을 자연의 섭리를 부정해 버려 우산을 거꾸로, 비를 안으로 병치 시켰다. 그러했을

때의 풍경은 어떠할지 상상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빗줄기의 선이 떨어지고 땅위에 부딪혔을 때의 형태를 함축화 시켜 변용하였고, 소리도 결부시켜 바람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관람객들의 마찰이 생길 때 빗소리가 아닌 소리를 나게 하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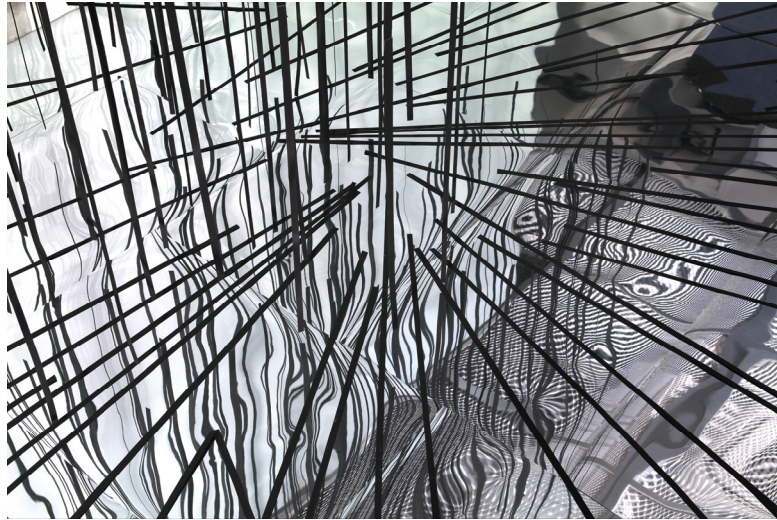
(upside gravity부분)

비가 떨어진 찰나의 모습을 함축화 시킨 삼각의 거울 비는 물이 가지고 있는 반사성을 표현해 움직임과 굴절 빛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가는 풍경을 담아 냈으며, 우산속의 비의 그림자들은 비가 가지고 있는 내면성이



그림5 raining, mixed media, 290X290X620cm, 2015

그림5 raining는 그림4와 같이 우산과 비의 관련된 또 다른 시리즈 작업이다. 비가 수직 하강 하여 떨어 지는 선의 특징과 그 선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비가 대기에 떨어 지고 나서 그 이후를 의식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투명우산과 검은 비의 대비에서 비의 존재성을 더욱 부각 시켰고 밑에 설치된 거울에는 비가 내린 후의 비의 상황을 간략하게 변화를 주어 표현하여 수직으로 떨어 지는 비의 선과 대기에 맞닿아 파동이 생긴 선을 형상화 시키고, 비의 선과 거울을 이용하여 오버랩하였다.



(raining부분)

이 역시 강물이나 호수에서 수면위로 비췌지는 물의 반사성을 이용하였고, 여러 각도 차원에서 비의 모습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으며, 거울을 통한 비와, 물의 이면세계를 비의 선 요소와 강물과 호수의 면요소를 함께 공간을 형성하여 연출하면서 무수히 반복하고, 중첩, 왜곡 하면서 나타나는 일루전을 통한 명상을 추구하였다.



그림6 moonlight, 항아리 안에 물과 책, 60X60X75cm, 2015

물은 신화나 신앙 등 옛 부터 다양하게 읽혀져 왔다. 어릴 적 항아리 속 물에 비춰진 달빛을 보며, 대보름날 밤 우물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용란 이라고 했던 유래와 고구려 <동명왕신화> 동명왕의 모비인 柳花(유화)가 웅심연이라는 물 출신으로 그려져 있었던 이야기 등 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들 떠올리며 감상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그림6은 항아리 물속에서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이러한 어릴 적 경험을 투영 시킨 작업이다. 책을 메모리칩으로 보았고, 물의 상극적인 요소로서 오히려 물속에 책을 넣어 쌓았다.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물과 책의 관계를 통한 아이러니는 어릴 적 호기심, 상상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또한 항아리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거울과는 또 다른 깊이감과 함께 나르시스를 심상화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에 의하면 “물에 반영된 심상은 하나의 체계적 이상화에 사로잡힌다. 신기루가 실재를 바로 잡는다. 신기루는 실재로부터 불완전함과 근심거리들을 사라지게 만든다.”¹³⁾ 라고 말하였다. 항아리 속은 이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3)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서울: 문예출판사,1980)



그림7 포석정, mixed media, 물 큐브(30X30X45cm)X8, 1050X150cm, 2015

그림7 포석정은 귀족들이 물줄기에 둘러 앉아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시를 읊으며 연회를 벌인 장소이다. 포석정의 구조를 차용한 작업으로 그림6에서 반대로 향아리 속물이 아닌 물속에 향아리를 집어넣었다. 그림6에서 메모리칩으로 쌓았던 책의 내용들과 향아리 속을 들여다보며 잠겼던 무수한 생각들과 기억들을 밖으로 표출하여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변용하였고, 물의 흐름을 표현한 내용 안에는 노자의 '상선약수'¹⁴⁾를 차용해 물의 내적 성질과 물결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 한자 문자 자체를 흔들며 물의 움직임

14) 老子(노자) 사상의 표현으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 이 세상에서 물을 가장 윗길 가는 선의 標本(표본)으로 여겨 이르는 말.

표현 하였다. 중간에 4각 물 큐브와 항아리를 각기 다르게 물을 넣어 다양하게 물기둥과 항아리를 모습을 연출 하였다.



(포석정부분1)



(포석정부분2)



(포석정부분3)

이는 물이 사물에 담겨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담겨진 그 형태로 보여 지는 물의 특성을 살렸고, 항아리 속 거울과 물과의 대비를 이용하여 유리거울과 물에 비춰진 형상이 서로 다른 심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점을 보여 주었다. 결국 그림6는 항아리 속물에 내재된 심상 표현 이라면, 그림7은 내재된 심상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다. 투명체 안에 물을 채워서 사각의 물기둥을 만들어 자연 상태에서의 물의 본질적 특성을 사각의 물기둥으로 재단해 세워봄으로서 유요의 π , ∞ 의미를 이론적으로 실제 나타내 보았으며 물의 연한 성질을 살려 항아리를 띄어 물기둥 안에서의 물의 본질적 특성을 살려 보았다.

2) 불과 관련된 작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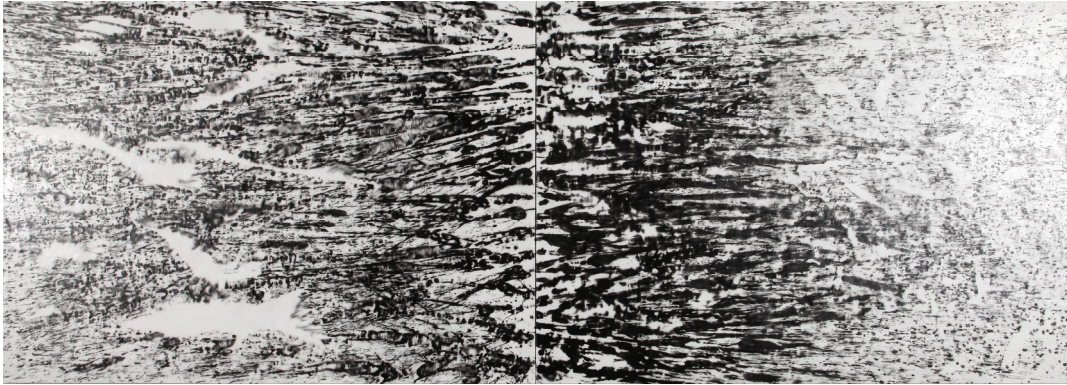


그림8 foce, 캔버스위에 양초, 불, 122X340cm, 2015

그림8 foce는 제목과 같이 불이 지니고 있는 힘, 에너지를 화면의 확장 개념으로써 사용하였다. 조형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불에 의해 녹여진 양초를 이용하여 행위적으로 뿌려 나갔다. 떨어져서 선으로 퍼져나가 점으로 남아진 형태는 작품 밖의 상황을 진행형의 상태로 보아 여운을 남겼고, 작업의 표현 행위는 내면의 심리와 감정 표출을 자신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안, 밖으로 치열히 요동치는 촛불 에너지의 불꽃을 올 오버페인팅 형식으로 담아냈다.

또한 바닷가 석양에서 물과 불의 현상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생각해 낸 작업인데, 바다(물)를 양초의 액체상태, 해(불)를 양초의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혼합하여 풍경 안에 이러한 성질을 부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불(해)이 물(바다)에 닿아서 불이 물위에 흐른다.→ 불이 물 위에서 파문을 일으킴(석양불빛)→물은 불을 움직이게 하고 불은 물을 밀어냄.→ 불이 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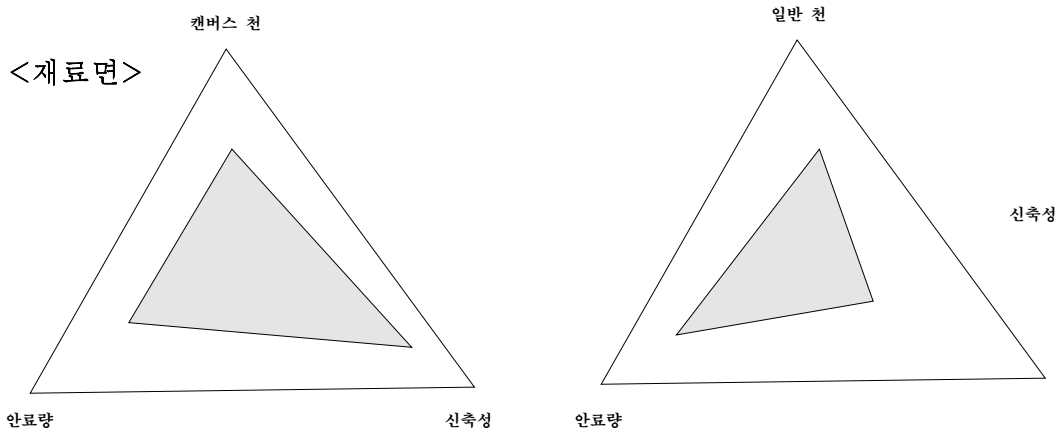
잠기면서 흐르는 불로 소멸하고 어둠의 시간으로 적막해짐.→ 적막 속 물의 파문 시작.→물 파문소리.→ 물과 불 고요 속에 잠기다→심연의 사색시간.→ 영적인 사유의 시간.→창조의 레이어들.→ 사유의 레이어 들이 쌓여 나의 화면에서 발현됨.



그림9 Motion, 캔버스위에양초, 불, 170X13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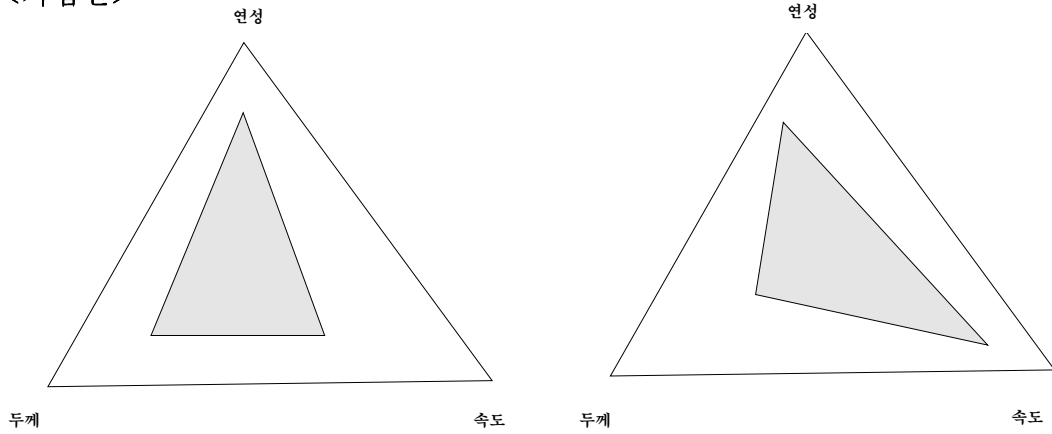
그림9 Motion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서 불과 양초로 이루어진 작업이며, 불로써 형상화한 풍경이다. 불에 의한 연소의 과정을 통해 소멸시키고 그 흔적을 고정 시키고자 불의 세기와 압력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로 구성

하였고, 물로 작업한 그림1,그림2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업이다. 물에 의해 녹여져 액체 에서 순식간에 고체 상태로 변하는 특징을 이용하였고, 그림8은 불의 폭발성을 보여 주었지만 그림9는 불의 화학적인 순간원리들을 이용하여 구성해가는 창조성을 찾아보고자 노력 하였다. 촛불의 심지에 파생된 불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보아 불로 식물의 형태적 특징을 살려 화면에 표현 하였다.불의 세기로 인해 번지는 양초와 안료의 움직임은 수차례의 실험과정을 통해 불을 이용한 회화의 표현 수단이 되었고, 이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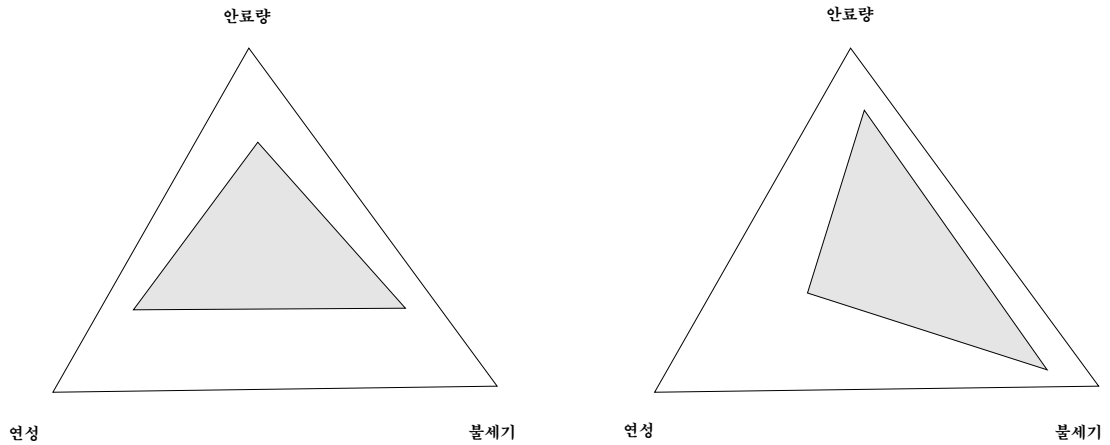
첫째, <재료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양초와 안료를 잘 고정시키는 지지대의 상태이다. 일반 천 같은 경우 천조직의 상태가 캔버스보다 조밀하게 엮어져 표면이 매끄럽다. 천 조직의 상태에 따라 신축성도 다른데, 안료량이 적을수록 신축성이 높아 졌고 일반천의 경우 신축성이 많이 감소했다.

<기법면>



둘째, 속도에 따른 연성과 두께는 양면성이 있어서 온도가 유지되고, 연성 상태에서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두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온의 연성에 의한 두께는 얇게 나타났다.

<재질면>



셋째, 안료량에 따른 불의 세기는 연성과 직결 되어 있는데 안료량이 많을수록 불의 세기에 큰 영향이 없었고 연성 또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안료량이 늘어나고 불의 세기가 강해져도 연성은 오히려 반감되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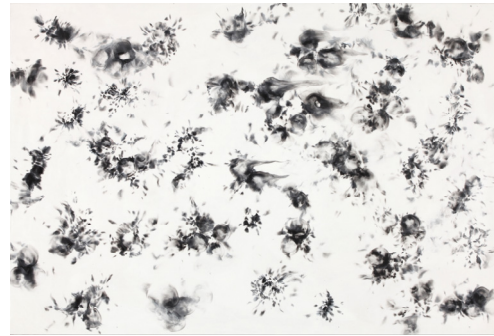


그림10 Contens, 캔버스위에 양초, 불, (75X110cm)X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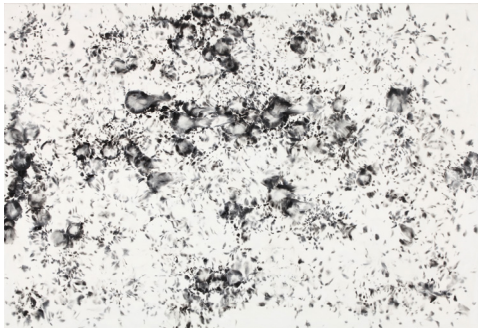
그림10 Contens는 불의 원형질이 연소에 의해 소멸해 가는 과정을 4개의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림9와 달리 다양한 불의 세기를 이용하기보다 같은 불의 세기를 이용하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점들은 같은 불로 이루어 졌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하나의 객체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불로써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형태적 요소에 의미를 부여 해보기 위해 화면을 공중에 매달아 부유하며 움직이는 형상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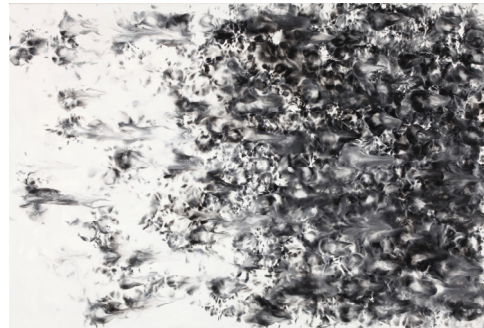
(Contens부분1)



(Contens부분2)



(Contens부분3)



(Contens부분4)

화면의 이동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하여 점의 형태가 점점 소멸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 화면에서 소멸해가는 동시에 여백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 시켰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생과 사를 불과 양초를 이용하여 생과 소를 빚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 불의 환(순환), 천에양초, 투명필름, (불의 환 부분1)
1000X100X260cm, 2015

그림11 불의 환(순환)은 불에 의한 '생'을 투명 필름으로 인간의 희노애락으로 여러 모습을 선과 면으로 생성하였고, 선 요소와 면 요소들의 상호 공간성을 형성 하도록 하였고 서로 이어진 인간들은 순환의 의미로 확대해 보았다.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시킨 거꾸집을(투명필름) 이용해 투명필름이 불에 녹여지는 연성을 이용하여 공간을 2차 재구성한 것이며, 귀결점인 양초인간 형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어진 투명필름 인간들 속 안에 양초로 굳힌 선을 넣어서 선에 의한 조형도 부가 시켰으며 선과 면의 조화와 굳힌 가는 선으로 전체를 연결시켰다.



(불의 환 부분2)

레이어로 단계마다 나타나 있는 천속의 인간 모습들은 인간 속 주름과 함께 투명 인간들을 각각 다른 면에 전이 시켜 각각의 레이어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천의 파동에 의해 발현되는 모습과 파동에 의해 인간의 새로운 모습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마지막에 흰색 초를 굳혀 형상화 하였다. 천안의 레이어 형상들 또한 초를 녹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로 녹인 양초의 다양한 표현과 투명에서 불투명해져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세상 만물의 근원인 물, 불을 소재로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 특성, 신화나 역사 속의 의미, 철학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물과 불의 존재론적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본인이 물과 불에 대한 경험과 추억으로 부터 표출된 일련의 사유에서 발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물과 불은 예술영역 뿐만 아니라 과학, 인문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이루기까지 많은 소재와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근원과 본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며, 본인은 근원과 본질을 물과 불로 보는 것이다.

본인은 본인의 창작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물과 불의 속성과 원리, 이치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추론해가며, 작업으로 옮겼다.

물과 불의 성질은 상극적인 요소 이지만, 두 성질 모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에서 물과 불의 병치 그리고 대립과 화합을 표현 하였다. 또한 자연안에서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두 원리가 하나의 현상으로(시와종)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물체와 공간은 보여주고자 하는 자(자아=물, 불)와 보는 자(관람자)가 서로 연결이 된다.

물과 불을 소재로 두 파트로 나누어 물이 지니고 있는 순환성, 선적인 조형

성을 부각 시켰고, 물과 관련하여 우산속의 비, 물이 흐르는 포석정,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를 차용 했으며, 평면 작업에서는 물의 성질을 먹으로 대변 하여 표현하였다.

불은 불을 가지고 회화적으로 작업 할 수 있는 양초를 녹이고, 굳혀 화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불이 가진 하나의 상징인 '도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연소하여 사라지거나, 태워질 상황을 뒤바뀌 생성된 상황으로 연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의 흐름과 이동의 성질, 불의 용해와 응고의 성질'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본인은 경험 축에서 발현된 사유의 레이어 들을 본질로부터 공감대를 얻고자 심상에서의 조형 언어들을 여러 실험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러한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스통 바슐라르 저, 김병욱 옮김, 『불의 정신분석』 이학사, 2007
- 가스통 바슐라르 저, 김웅권 옮김, 『촛불의 미학』 동문선, 2008
- 가스통 바슐라르 저, 안보옥 옮김, 『불의 시학의 단편들』 문학동네, 2004
- 가스통 바슐라르 저, 이가립 옮김, 『물과꿈』 문예출판사, 1980
- 에드워드 윌슨 저, 김성환 옮김, 『프로메테우스의 불: 마음은 어떻게 발생하고 진화하는가?』 아카넷, 2010
- 윤현섭, 『추상미술과 지의 자아』 인간사랑, 1997
-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아트, 2012
- 이지훈, 『예술과 연금술』 창작과 비평사, 2004
- 장 피에르 베르낭 저, 박희영 옮김,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아카넷, 2005
-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 최영박, 『자연의 물, 인간의 물』 집문당, 1994

ABSTRACT

Pictorial Expression Studies using the Water and Fire Characteristics

-With a main Focus on the Autor's Work-

KIM, Hye l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rtist's works of art that have had a consistent theme of water and fire—sources of all the things in the world since before the beginning of time—in terms of motivation, purposes, theoretical background, as well as their substantial and aesthetic aspects.

In nature, water and fire are observed in various realms ranging from mythology to religion and science. Even as scientific civilization advances rapidly, both remain important as essential elements for the humankind.

For artists, water and fire have been used to express a zeitgeist of particular times, and also as versatile themes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as can be seen in oriental paintings of mountains and water, and western landscape paintings. In contemporary era, they have come to be used as a language of formative arts, along with expanding scope of media. Artists directly draw from peculiar properties of water and fire, or use them for developing a plot of the story. They are based on historical events, philosophical ideas, as well as the artist's personal experiences. The reason for working with water and fire lies in one of their properties: creation and extinction. This simple truth is analogous to people's life from birth to death, and this worldly destiny makes people turn to self-reflection, and raises a multitude of questions over one's nature and essence.

This is an issue of keen interest, as people are faced with conflicts and discrepancies that arise from a rapid advance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and consequent man-mad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tistic creation comes from efforts to answer a more fundamental question on the essence of water and fire. To answer this, we can look at our own surroundings and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our time. We carry out given tasks at school, workplace, and at home, and we gradually become hardened and mechanical amid repeated daily routines and cycles. We are anguished with mental pain, and yet, we resign ourselves and follow the order of society to survive the cutthroat competition, and whether consciously or not, conform to the social order that we cannot defy. This is the way we live in this era, the way I live my life. The only way to find and at least partly recover humanity and

enrich ourselves, within this heavy, cyclic fether is to return to nature and be with nature. For this reason, the artist chose water and fire, and developed ideas and work from relevant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The artist's Master's degree exhibition in 2015, titled '*Yuyo* (유요)' means 'to delineate points.' The aim was to highlight properties of the elements. In Korean letters, 丌 and ㄣ are put on the opposite sides of ○, as if expressing yin and yang, to emphasize the conflicting nature of water and fire, in addition to evoking an aesthetic pleasure. The works were divided into sections for water and fire, with a theme borrowed from the idea of Laozi that nature is a dynamic organism whereby all things and events are interconnected for endless circulation. Water and fire were directly used to create art, and their meanings wer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lso,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the fixed concepts of water and fire for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ir quality. As mentioned earlier, both water and fire are fundamental elements in a human life, and used as basic elements in the artist's work. However, instead of adopting their properties as it is, the artist brought about conflicting, sometimes contradictory changes, to create unique qua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meaning of fire and water, and describes how the artist uses both elements in his work.